



주간통일정세 2008-42(2008.10.13 ~ 10.19)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8-42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증조모 기일에 화환 전달(10/1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8일 증조모인 리보의 사망 49돌(10·18)을 맞아 만경대에 있는 묘에 화환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행사장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로두철 내각 부총리 등이 참석했으며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내각의 성, 중앙기관, 평양시내 당·정 기관과 협동농장 명의를 화환도 진정, 통신은 김 위원장을 노동당 총비서, 국방위원장, 최고사령관으로 호칭함.
- **김정일, 영농물자 전달 보도(10/17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측 강원도 고산군에 있는 고산과수농장에 영농물자들을 보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7일 보도, 이 농장은 지난 5월초 김 위원장이 ‘현지지도’하면서 농장을 대규모 과일 생산기지로 꾸리고 과일 생산도 늘리도록 지시하고 영농물자를 전달했던 곳임. 이번엔 현지지도 없이 16일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리철봉 강원도당 위원회 책임비서, 김철호 과수연합총회사 총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가짐.
 - 조선중앙방송은 또 김 위원장이 최근 평양시내 인민대학습당에도 여러 차례 100종에 달하는 도서와 시디(CD)자료를 보내줬다고 보도
- **北, 김정일 군사찰관 관련 해외보도 주시(10/15,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821군부대 예하 여성 포중대를 시찰한 소식을 “11일과 12일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했다”고 전함으로써, 김 위원장의 동정에 대한 해외의 반응을 주시하면서 이 반응을 주민들에 대한 선전용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내비침.

나. 정치 관련

- **자주권 침해, 내정간섭 불용(10/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우리 공화국의 대외정책 이념은 확고부동하다’ 제목의 논설에서 “현 국제정세는 의연히 복잡다단하다”며 북한은 “자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을 간섭하며 지배 통제하려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 신문은 이어 “제국주의 반동들”은 북한에 대해 “폐쇄”니, ‘고립’이니 하고 험담하고 있다”면서 이는 “어처구니없기 짝이 없는 비방 중상”



이라고 지적한 후 북한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식대로 정책을 작성하고 집행해 나가며 자주정치, 선군정치로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쳐 나가고 있다”고 주장

- 신문은 “자주, 평화, 친선은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 위업을 추동하는 우리 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근본이념”이라고 강조

* 이 논설은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정권 수립 60주년(9월9일)을 앞두고 9월 5일 발표했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라는 담화에서 대외관계와 관련한 언급을 해설한 논설

● 北, 외교관들에 ‘중대발표’ 대기 명령(10/18, 요미우리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대 발표”를 앞두고 해외 주재 외교관들에게 대기 명령을 내렸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 신문은 북한 당국이 세계 전역의 자국 외교관들에게 여행을 자제하고 한 장소에 머물러 있을 것을 당부했다고 보도

● 南단체 뼈라 살포 비난(10/18,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8일 ‘노골적인 동족대결선언’ 제목의 논평에서 남한의 대북인권단체가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당 63주년(10.10)에 맞춰 ‘대북 선전물(뼈라)’을 북측으로 날려보낸 데 대해 이명박 정부의 “우리(북한) 체제에 대한 악랄한 도발”이라고 비난

● 北, 남북관계 전면 차단할 수도... 협박(10/16,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은 16일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며 무분별한 반(反)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는 북남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해 중대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
- 논평원은 이날 “(남측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짓밟는 극우분자들이 들어앉아 있는 이상 북남관계가 정상화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이명박 패당의 반공화국 모략 소동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서 전쟁이 터지게 되면 그 누구도 역적 패당을 구원해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

● 北, 정치적 안정과 단결 강조(10/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빛나는 역사를 창조하신 불세출의 위인’ 제목의 장문의 논설에서 “아무리 방대한 군사·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사회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단결돼 있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은(성과)을 낼 수 없고 결국에는 강국의 지위를 잃게 된다는 것을 역사는 한두번만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일심단결’을 강조

- 신문은 김 위원장의 9월 5일자 ‘담화’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면서 “영도자의 두리에 뭉친 군대와 인민의 단결의 위력만 있으면” 어떤 정치·군사적 압력과 경제적 봉쇄와 사상문화적 공세도 두려울 것이 없다고 주장
- 특히 ‘강성대국’의 개념을 “그 어떤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신문은 설명

● **北방송들, 테러지원국 해제 주민들에게 보도(10/13,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평양방송)**

-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TV, 평양방송 등 북한 방송매체들은 13일 ‘10.3합의’에 따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사실과 6자회담 참가국들이 지금까지 중유 35만t과 설비자재 6천여만 달러어치를 북한에 제공한 사실을 보도
- 조선중앙방송은 “앞으로 10.3합의의 이행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5자의 경제보상이 완료되는 데 달려 있다”며 “5자는 10.3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100만t의 중유에 해당하는 대용 에너지를 제공하고 그중 70만t은 중유 현물로, 나머지 30만t분은 발전용 설비자재로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며 지원 현황을 소개
- 방송은 또 “지난 10월 1일부터 3일까지 평양에서 조(북)·미회담이 열려 회담에서는 10·3합의에 따르는 정치·경제적 보상의무 이행과정에 제기된 장애와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진지하고 유익한 토의가 진행됐고 일련의 합의가 이룩됐다”며 “이에 따라 미 행정부는 10월 11일 우리나라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마감조치를 취했다”고 발표
- 이어 방송은 “미국이 정치보상 의무 이행을 끝내고 조·미 쌍방사이에 무력화 단계에 부합되는 공정한 검증절차가 합의된 데 따라 우리도 행동 대 행동 원칙에서 10·3합의에 따르는 자기의 의무를 계속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도

● **北, ‘김정일 담화’ 관철 정국 조성(10/13, 노동신문)**

- 북한 매체들은 담화 발표 이전부터 김 위원장의 담화 하달에 관해선 언급없이 담화 내용에 따른 보도물을 쏟아냈지만, 10일 발표 이후엔 연 나흘째 이 담화를 거론하며 사실 등을 통해 그 실천운동을 독려
- 노동신문은 13일 ‘당의 영도따라 우리 공화국을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끝없이 빛내이자’는 제목의 장문의 사설을 싣고 이 담화를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으며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에게 하신 역사적인 시정연설”이라고 규정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노작에 제시된 사상이론을 구현해 사회주의 조국의 존엄과 위력을 만대에 떨쳐나갈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보도

- **노동신문, 10·4선언 부정평가는 정면대결 선언(10/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하늘에 대고 주먹질하는 어리석은 행동” 제목의 논평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최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0·4남북정상선언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을 “북남관계를 더욱 더 헤어나기 어려운 파국으로 몰아가는 분별없는 망동”이라고 비난

다. 경제 관련

- **가을걷이로 분주한 北농촌(10/17, 조선중앙방송)**
 - 북한 농촌이 벼와 옥수수, 감자의 가을걷이로 분주, 조선중앙방송은 17일 “온 나라 협동별이 가을걷이로 세차게 들끓고 있다”며 “서해 곡창지대에서 벼 가을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다”고 보도
 - 방송은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북도 농업 근로자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자각”으로 매일 베 베기 실적을 높이고 있으며, 북부지대인 함경남·북도와 자강도에서는 벼와 옥수수 가을을 기본적으로 마치고 탈곡 작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도
 - ‘감자의 고향’인 대흥단군 등 량강도에서는 감자 수확이 마무리 단계이고, 콩 농사도 70% 이상 완료, 또한 북한은 옥수수 수확을 마침과 동시에 이모작을 위해 가을밀과 보리 파종을 하는데, 10월 중순 파종을 모두 완료함.
 - 가을걷이를 위해 주민 노력 동원과 농민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경제선동도 강화, 신문·방송들은 최근 연일 ‘모두 다 가을걷이 전투에로’라는 제목으로 추수를 독려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고, 노동당 출판사에서는 ‘귀중한 낱알을 허실하지 말고 제때에 말끔히 가둬 들이자’는 선전화(포스터)를 제작·보급, 또 중앙예술단체는 물론 각 도 예술단과 시, 군 기동예술선동대를 협동농장에 파견해 공연과 화술 등 다양한 방법의 정치선전과 경제선동을 집중적으로 진행
- **北, 시멘트, 작년보다 30% 증산(10/9,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생산한 시멘트 총량이 2007년보다 생산량보다 30%나 증가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9일 건설건재공업성 박영수 부국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
 - 방송은 특히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평남 순천시), 천내리시멘트공장(강원도 천내군), 대안천선유리공장(평남 대안군) 등의 시멘트 생산과 유리생산이 혁신적으로 증가해 “최근 년간에 가장 높은 생산실적으로 기록됐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음.



라. 사회·문화 관련

- **北평양의대, 4개국어 등재 의학사전 출판(10/18, 조선신보)**
 - 북한 보건의료의 ‘메카’인 평양의학대학은 최근 한글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국어 용어를 함께 표기한 의학대사전을 새로 편찬했다고 조선신보가 18일 보도
- **제11차 인민체육대회 개최(10/17, 조선중앙통신)**
 - 제11차 인민체육대회 개최가 17일 김일성경기장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축구, 농구, 배구, 탁구, 육상 등 30여개 종목의 경기가 열리는 이번 대회 개막식에는 김중린 당 중앙위 비서, 곽범기 내각 총리, 박학선 체육지도위원장 등이 참석
- **北, 싱가포르 청소년올림픽 선수 선발중(10/16, 조선신보)**
 - 조선민족올림픽위원회는 각각 2010년 8월과 내년 7월 싱가포르에서 열릴 제1회 청소년올림픽경기대회와 제1회 아시아청소년경기대회에 출전할 선수를 선발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16일 보도, 신문은 북한 올림픽위원회가 우선 참가 종목을 확정했다며 위원회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축구, 탁구, 송구(핸드볼), 권투, 유술(유도), 레슬링, 기계체조, 예술체조(리듬체조), 육상, 물에 뛰어들기(다이빙), 수중발레를 등
- **평양의대병원, ‘안경’으로 두통치료(10/16, 조선신보)**
 - 평양의대병원이 최근 안경처럼 생긴 ‘뇌파운동조종기구’를 이용해 두통을 치료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신문은 “작은 장치가 달려있는 이 색안경을 끼고 20~30분간 눈을 감고 있노라면 눈시울에 번쩍번쩍하는 빛자극이 가해지고, 점차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아픔이 사라지고 기분이 상쾌해진다”고 치료 과정을 소개
- **평양서 윤이상음악회 개막(10/15, 조선중앙통신)**
 - 제27차 윤이상음악회가 15일 평양시 윤이상음악당에서 개막돼 10월 17일까지 열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개막 공연에는 북한의 중앙예술단체와 윤이상음악연구소 관현악단,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관현악단 예술인들이 출연
 - 강능수 문화상과 문화예술부문 창작가 등 북측 관계자와 윤이상 선생의 부인과 딸, 신계륜 이사를 단장으로 한 남측 ‘윤이상평화재단’ 참관단이 공연을 관람했다고 통신은 보도
- **北평양안과병원, ‘유리체-망막 수술’ 성공(10/14, 조선신보)**
 - 국제라이온스협회가 건립을 지원한 북한의 ‘평양안과병원’이 안구에서 이상이 있는 유리체를 떼어내고 인공 유리체를 끼워넣는 ‘유리체-망막 외과수술’에 성공했다고 조선신보가 14일 보도



- **김일성대, 식용 참나무목초액으로 특허(10/14, 조선신보)**
 - 김일성종합대학이 식용 약물로 개발한 참나무목초액으로 북한의 특허를 따냈다고 조선신보가 14일 보도

- **北, 20년간 기아지수 악화 세계 2위(10/14,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1990년부터 2008년 사이 기아지수가 악화된 순서로 콩고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세계 식량정책연구소(IFPRI)의 '2008 세계 기아지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
 -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대 기아지수(GHI) 악화국 가운데 나머지는 모두 스와질랜드,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차지함으로써 아프리카 이외 지역에선 북한이 유일하게 포함- GHI는 총 인구대비 영양부족률, 5살 미만 아동의 저체중률, 사망률을 종합한 수치로, 2008보고서에서 북한은 18.8을 기록해 심각한 수준으로 분류
 - 보고서를 작성한 IFPRI의 요하네스 연구원과 클라우스 그렘머 박사는 그러나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인 데다 식량생산도 감소되는 경향이 지속된 결과 영양실조율이 높아지고 아동들의 저체중이 늘어나 GHI가 가파르게 악화됐다고 설명하고 특히 이 보고서 작성 당시 정확한 통계자료가 부족해 올해 급등했던 국제 곡물가격과 그 파급 영향은 고려하지 못했다면서, 북한을 포함해 기아 수준이 심각한 나라들의 서민이 올해 더욱 심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RFA는 보도
 - *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IFPRI는 북한의 농업개발을 지원하는 아일랜드의 비정부기구 '컨선(Concern)', 독일의 '저먼 애그로 액션(German Agro Action)'과 함께 세계 기아를 퇴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해마다 '세계기아지수'를 발표

- **北김일성대, 갑문관리시스템 개발(10/13, 조선중앙통신)**
 - 김일성종합대학 지구환경과학부는 대동강 유역의 갑문과 저수지를 과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동강유역 갑문관리 지원체계'를 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관련

- **美, 北 핵시설 불능화 재개(10/17, 美 국무부)**
 -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활동을 재개했다고 미 국무부가 17일 밝힘.



- **中, 차기 6자회담 일정 조율중(10/16, 중국 외교부)**
 - 중국 외교부는 16일 차기 북핵 6자회담의 일정과 관련, 참가국 간에 협상과 조율이 진행 중이라고 밝힘.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24~25일 열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이전에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는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이같이 언급
 - 그는 “모두가 적절하고 편리한 시간에 조속히 차기 6자 수석대표 회담을 개최하자는 것은 참가국의 공통된 인식”이라면서 “일정이 확정 되면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답변

- **북핵 폐기 비용, 한국등 관련국이 나눠 분담해야(10/16,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핵 폐기물과 핵시설 처리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한국을 비롯해 6자회담 당사국들이 그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프랭크 자누지 미 상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이 주장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
 - 미국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선 후보 진영에서 한반도정책 등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자누지 위원은 15일 미 하원 레이번빌딩에서 열린 한반도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영변 핵시설에서 핵폐기물을 청소하고 안전하게 제거하는 등의 일에 많은 돈이 든다며 “처음에는 미국이 비용을 낼 수 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한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도 비용을 나눠 낼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

- **IAEA, 북(北), 폐연료봉 제거작업 개시(10/14, 국제원자력기구)**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4일 “북한이 14일부터 IAEA 요원이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제거하는 작업을 개시함으로써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회원국들에 배포한 문서를 통해 밝힘. 문서는 또 북한이 13일 IAEA 검증팀의 핵시설 복구를 허용했다면서 이에 따라 재처리시설의 폐쇄 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붐인과 카메라를 다시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

나. 북·미 관계

- **美 대북 지원식량 5차분 출항(10/18,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이 북한에 1년간 지원키로 한 식량 50만t 가운데 5차분인 2만 5천 60t의 옥수수과 콩을 실은 미 선박이 17일 오전 북한을 향해 버지니아주 노퍽항을 출발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
 - 미국 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의 제랄드 크루즈 공보담당은 “미 국적선 메리 앤 허드슨호가 기상이변이 없는 한 11월 18일경 북한 남포항에



도착할 것”이라고 답변, 그는 “다음 달에 선적될 6차분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당분간 미국 구호단체들이 대북 지원 식량의 구매, 선적, 분배를 맡게 될 것”이라고 언급

- 미국 정부가 9월까지 보낸 11만 8천여t의 식량은 대부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함경도와 량강도 등 8개 지역에 배급됐지만, 이번 선적분은 월드비전, 머시코, 사마리탄스 퍼스,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크리스천 프렌즈 오브 코리아 등 5개 구호단체가 맡아 자강도와 평안북도에 분배할 예정

● 미국, 4차 대북 식량원조 선적 예정(10/17, 연합뉴스)

- 미국이 대북 4차 식량 지원 물자를 선적할 예정이라고 구호단체 관계자들이 16일(현지시간) 밝힘. 머시 코어와 사마리탄스 퍼스,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크리스천 프렌즈 오브 코리아 등 미국의 5개 구호단체들은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2만5천60t 규모의 옥수수과 콩이 급주중 선적돼 11월 하순 북한 남포항에 도착한다고 발표
- 이들은 미국이 보내는 식량은 자강도와 평안북도의 공공 배급소와 고아원, 학교, 병원, 탁아소를 통해 어린이와 임신부, 수유부, 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89만4천명에게 배급될 것이라고 언급, 이번 식량 지원은 미국국제개발처(USAID)가 자금을 제공하고 구호단체들이 배급을 맡는 형식으로 미국의 대북 식량 원조는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임.
- 미국의 5개 구호단체들은 1년간 총 10만t의 식량을 북한의 취약계층에 제공한다는 계획을 진행중 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유엔 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도 미국의 기여금으로 구입한 40만t의 식량을 보낼 계획임.

● 北, 적대시 정책 철회돼야 비핵화 실현(10/16, 민족통신)

- 신선호 유엔 대표부 대사는 유엔 총회 제63차회의에서 “조선(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자면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핵위협이 종식되고 ‘제도 전복’을 노린 적대시 정책이 결정적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재미동포 온라인 매체인 민족통신이 16일 보도
- 신 대사는 10월 13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본질에 있어서 우리 공화국(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 종식과 핵위협 제거와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
- 그는 북한은 “초대국의 위협을 항시적으로 받고 있는 나라”라며 “우리가 핵 억제력을 소유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은 바로 반세기 이상에 걸치는 미국의 뿌리깊은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 그러나 북한은 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입장을 갖고 “핵신고서 제출과 핵시설 폐기단계에 들어가서 해야 할 조치들까지 앞당겨 취했다”고 그는 말



하고 “앞으로도 철저히 ‘행동 대 행동’ 원칙에서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신 대사는 또 북한은 이미 수차례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며 “조선반도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라고 주장

● **北, 유엔서 美반테러전을 “국가테러”라고 비난(10/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정부 대표는 유엔 총회 제63차회의에서 미군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공, 이들 나라에서의 반테러전을 “국가군대에 의한 테러행위의 전형”이라며 “국가테러행위를 시급히 근절하는 데 특별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

● **주러 북한대사, 테러지원국 해제 환영(10/13, 리아 노보스티 통신)**

-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고 13일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보도, 김영재 주러 북한대사는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의 조치를 환영하며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언급
- 그는 또 “북한은 모든 6자회담 당사국들이 각자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의 공통 관심사는 한반도에서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

다. 북·중 관계

● **中창바이현, 北 관광코스 개통(10/16, 길림신문)**

- 중국 지린(吉林)성의 창바이(長白)조선족자치현의 장백산국제관광유한회사가 백두산을 비롯한 북한의 관광사업에 나서기로 함. 길림신문은 16일 “일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국제총여행사 백두산여행사와 장백조선족자치현 장백산국제관광유한회사가 장백호텔에서 관광업 합작항목 체결식을 가졌다”고 보도, 체결식에는 조선국제총여행사 백두산여행사 송일범 사장, 최금철 책임서기, 중국북경박시금삼투자유한회사 하검 총재, 장백박시금삼투자유한회사 고가기리사장, 장백박시금삼투자유한회사 진국중 총재, 장백현 장백산국제관광유한회사 전명숙 총경리 및 장백현 당위와 정부의 책임자들이 참석
- 신문은 “쌍방은 조선(북한)과의 이국풍정을 위주로 1일, 2일, 3일 관광사업을 벌이게 된다”며 “주로 백두산 천지와 조선 삼지연, 리명수 폭포와 보천보 혁명 전투사적지, 김정숙 사범대학, 혜산 소년회관 관광과 혜산극장 공연 관람 종목이다”고 언급



* 지린성 남부의 백두산 남쪽, 압록강 상류에 위치한 중국 유일의 창바이(長白)조선족자치현은 북한의 량강도 혜산시, 삼지연군, 보천군, 삼수군, 김정숙, 김형직군과 인접

● 북·중, 경제무역과학기술촉 개최(10/14,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중국은 14일 북한의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경제무역과학기술 협조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양측의 경제, 과학기술 협조 및 무역관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통신은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소개하지 않은 채 북한에선 구본태 무역성 부상이, 중국에서는 왕차오(王超) 상무부 부장조리가 참석했다고 보도
- * 북한과 중국은 2005년 3월 베이징에서 이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매년 한 차례 회의를 개최, 2007년 9월에는 베이징 제3차 회의에서 중국 훈춘(琿春)과 북한의 라선시를 도로로 연결하고 라진항에 공단 및 보세구역을 건설하는 ‘훈춘-라선 일체화’ 계획을 논의했음.

라. 북·러 관계

● 북·러, 수교 60주년 친선 과시(10/17, 조선중앙방송)

- 북한과 러시아가 수교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축하 행사와 고위급 방문 등으로 전통적인 친선관계의 복원을 과시, 북한과 러시아는 수교 60주년에 즈음해 특히 라진-하산 철도와 라진항 개선 공동사업에 착수함으로써 앞으로 양자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주요한 기반을 마련
-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북·러 친선협회, 주북 러시아대사관은 16일 평양 룡라도유원지에서 친선모임을 열어 예술공연과 체육오락경기를 갖고 양국간 우의를 다졌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7일 보도, 문재철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대리, 북·러친선협회위원장인 홍선옥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발레리 수히닌 북한주재 러시아 대사를 비롯한 양국 외교 관계자들이 모임에 참석
- 10월 13일에는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러시아의 외무부, 연방평의회, 국방부, 경제발전부, 러·북정부간 경제협조위원회, 모스크바시 정부, 모스크바시 내무총국, 러·북 친선문화협조협회 등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연을 개최
- 10월 14일에는 북·러 수교 60주년 기념 사진전시회가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주북 러시아 대사관 공동주최로 평양 국제문화회관에서 개막됐으며, 영화감상회도 평양시내 천리마문화회관에서 개막
- 10월 15일 러시아를 방문한 박의춘 북한 외무상은 모스크바 외무부 영빈관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정치·경제·문화 교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라브로프 장관은 박 외



무상의 러시아 방문에 대한 답례로 내년 북한을 방문할 예정

* 북한은 1948년 10월12일 옛 소련과 수교했으며 소련 붕괴 후 러시아는 1991년 12월 옛 소련이 해체된 후 러시아는 소련의 대북관계를 승계

● 北, 라진항과 철도통해 ‘국제물류허브’ 꿈꿔(10/1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4일 블라디미르 야쿠닌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의 말을 인용해 라진-하산 철도는 2011년 3만5천개, 2012년 7만개, 2013년 10만개의 컨테이너를 수송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 라진항의 관리·운영 책임자인 배호철 항장은 3단계로 나뉘어 개선되는 라진항의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0년 10월말이면 20만개의 컨테이너를, 2단계 공사가 끝나면 40만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음. 북러 양측은 항구의 바닥 준설을 통해 대형 선박의 정박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세워놓았음.
- 신문은 라진항은 러시아의 항구들과 달리 연중 얼지 않는 부동항이고 항의 동쪽으로 뾰족한 라진반도와 앞 바다에 있는 대초도와 소초도라는 크고 작은 2개의 섬이 방파제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 간만의 차도 20cm정도에 불과하다며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곳은 ‘천연의 양항’이라고 불려왔다”고 소개
- 북한은 라진-하산간 철도의 TSR과 연결을 염두에 두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먼저 남측에 동해선 남북 연결철도를 통한 한반도종단 철도(TKR)와 연결을 제안하는 등 동해지역을 통해 연결된 남북 철도를 TSR과 연결하는 사업에 큰 관심을 보여왔음. 이때문에 북러간 라진항 및 라진-하산 철도 개선 사업에는 특히 한국철도공사와 국내 물류회사도 컨소시엄으로 참여, 러시아의 지분중 40%를 투자키로 했으나, 러시아측과 라진항 운영 참여 문제 등으로 세부 미결사안이 남아 있어 아직 출자는 이뤄지지 않았음.
- 북한과 러시아가 라진-하산 철도복원과 라진항 개선을 위해 10월 10일까지 1억4천만유로의 출자를 완료했다고 조선신보가 14일 보도

마. 북·일 관계

● 北, 日총리 ‘대동아전쟁’ 발언 비난(10/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군국주의 괴수의 얼빠진 수작’ 제목의 논평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가 2차대전중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전쟁을 ‘대동아전쟁’으로 표현한 데 대해 “군국주의적 망발”이라고 비난

바. 기타외교 관계

● 北·폴란드 수교 60주년 행사(10/17,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폴란드 수교 60주년을 맞아 로만 이바슈케비츠 폴란드 대사가 16일 연회를 주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 연회에는 북



- 측에서 공석웅 외무성 부상, 리명산 무역성 부상, 한철 문화성 부상, 홍선옥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폴란드측에서는 방북중인 외교부 대표단과 왕실현악 4중주단 등이 참석
- 현악 4중주단은 16일 연회에 앞서 김원균 명칭 평양음악대학 음악당에서 공연을 가졌으며 외교부 대표단은 17일 평양을 떠나 귀환
- **북한 주재 캄보디아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 친선노동(10/1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주재 캄보디아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이 17일 황해남도 신천군 백석협동농장에서 친선노동활동을 벌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대사관 관계자들은 농사일을 마치고 준비해간 지원물자도 전달
 - **북한 주재 라오스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 친선노동(10/17, 조선중앙통신)**
 - 차런 와린타라삭 대사를 비롯해 북한 주재 라오스 대사관 직원들이 16일 평양시 사동구역 북-라오스 친선 대원협동농장의 가을걷이 지원
 - **獨, 평양서 평화·관용 상징 ‘버디베어’ 전시회(10/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주재 독일대사관이 독일 통일 18주년과 북한 정권수립 60주년을 기념해 10월 14일부터 평양 모란봉 공원에서 베를린의 상징인 ‘버디 베어(Buddy bear)’상 18개를 전시
 - **北, 외국학생 평양 연수초청 돌연 취소(10/15,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체제선전을 위해 계획했던 외국인 학생들의 평양 연수 계획을 돌연 취소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5일 보도, 방송에 따르면 북한의 사회과학자협회(KASS)가 북한의 문화와 역사를 해외에 알린다는 명목으로 유럽과 아시아권 학생들을 모집해 호주 학생 3명, 네덜란드와 일본 학생 각 1명 등 총 5명이 15일부터 3주간 개성과 황북 사리원 및 황남 신천을 방문하고 남북 합작기업인 평화자동차 공장도 견학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사회과학자협회측은 갑자기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여러 사정 때문에 이번 방문단을 받을 수 없다”며 초청 계획의 취소를 통보했다고 이번 연수생 모집의 해외창구인 호주 내셔널대학의 레오니드 페트로브 교수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밝힘.
 - 그는 북한 당국이 연수생들의 체류비까지 대면서 2007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초청한 것이기 때문에 초청 취소가 “좀처럼 납득되지 않는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더 안 좋아지고 그래서 평양의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니 그런 것 같기도 하다”고 추측하고 “평양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관리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든다”고 덧붙였다.



- 몽골과 ‘2009-2011년도 문화교류계획서’를 체결(10/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0월 8일 울란바토르에서 몽골과 ‘2009-2011년도 문화교류 계획서’를 체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전영진 북한 대외문화 연락위원회 부위원장과 오토공바야르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이 계획서에 서명

3. 대남정세

- 남북 단체, 日 독도영유권 규탄 공동성명(10/18, 연합)
 - 북한 조선불교도연맹과 남한 한일불교복지협회, 북관대첩비기념사업회는 18일 일본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명기 문제와 관련해 이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조선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비난, 성명은 이어 “북과 남의 온 민족은 앞으로도 일본이 저지른 과거죄행을 끝까지 따질 것이며 우리 민족끼리 더욱 굳게 뭉쳐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실천행동을 줄기차게 벌어나갈 것”이라고 강조
- 개성공단관리위 창립 4주년 기념식(10/17, 연합)
 -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창립 4주년 기념식이 17일 개성공단 현장에서 개최, 기념식에는 문무홍 위원장과 업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현대아산,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과 입주기업인 코튼클럽, 성화개성, 부천공업 등에 대한 통일부 장관 표창 수여도 진행
 - * 2004년 10월20일 출범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협력해 개성공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공단 관련 인·허가와 운영지원 등 업무를 수행
- 김숙, 북한이 도움받을 준비되면 돕겠다(10/17, 연합)
 -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7일 “북한이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움 준비가 돼있다”고 언급, 김 본부장은 17일 제주 중문관광단지 제주평화연구원에서 열린 ‘세계 식량위기: 동북아에서의 사회적·경제적 위협과 도전’이란 주제의 워크숍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언급
 - 김 본부장은 “북한의 만성적 식량부족을 해결하는 길은, 근본적 변화에 대한 북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한 뒤 “그러나 북한이 아직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조짐은 거의 없다”고 주장
 - 식량 원조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아무런 조건 없이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북한이 지원을 요청하면 검토를 거쳐 즉시 지원할 것이고, 심각한 식량위기나 자연재해가



닥쳤을 경우에는 북한의 공식 요청이 없더라도 식량지원을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

● **통일부, 금강산관광 조기재개 기대(10/17, 통일부)**

-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 발생 100일(18일)을 즈음해 북한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대화에 호응할 것을 재차 촉구,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금강산 사건이 해결돼서 관광이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뒤 “북한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진상조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하는 수준에서 진상 규명이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

● **조선적십자회, 유종하 한적 총재 임명 비난(10/16, 조선적십자회 대변인 답화)**

- 조선적십자회는 16일 유종하 신임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극우 보수 분자”라고 비난하면서 “북남 사이에 적십자 사업이란 기대할 수 없고 인도주의 문제와 관련한 그 어떤 논의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
- 조선적십자회는 유종하 총재가 김영삼 정부 시절 유엔주재 대사와 외무장관을 지내면서 “반공화국 대결 소동에 앞장”섰으며, “오늘날엔 친미보수 정권과 한쪽이 돼 반민족적인 대북정책 작성에 적극 가담하고, 동족사이의 대결을 부추기는 언동을 일삼고” 있다고 전력을 문제삼음.

● **제주 흑돼지·양돈기술 북한 이전(10/16, 연합)**

- 제주특별자치도와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는 고성준 도민운동본부 사무총장과 송중용 제주도 축정과장 등 관계자 8명이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초청으로 15일 북한에 가 18일까지 머물 예정이라고 16일 발표
- 이들의 북한 방문은 2007년 민화협 측에서 북한을 방문한 김태환 제주 지사에게 돼지 협력사업을 먼저 제안하면서 이뤄짐. 제주도 방북단은 민화협의 요청으로 9월 말 북한 개성에서 접촉을 거쳐 ‘흑돼지 협력사업’에 대해 1차 협의했으며, 이번에는 흑돼지를 사육할 북한 내 양돈장의 입지를 살펴보고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짐.
- 제주도와 도민운동본부는 흑돼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면, 북한에 300마리 정도의 흑돼지를 보내 청정 양돈기술을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

● **남북 역사학자들, 고려왕궁터 발굴재개 협의(10/16, 연합)**

- 남북한의 역사학자들이 10월 23일 개성에서 만나 고려왕궁터인 ‘만월대(滿月臺)’ 발굴 작업의 재개문제를 협의, 협의에 북측에선 중앙역사박물관, 민족화해협의회 실무진이 나오며 남측은 땅이 얼면 발굴이 어려운 점을 감안, 11월 초 발굴을 재개할 것을 제안할 예정



- 남측 역사학자 10명, 북측 40명으로 구성된 공동 발굴단은 2007년 5~6월 만월대 서부 건축군가운데 1만평에 대한 시굴을 거쳐 2007년 9~11월 1천평을 본격 발굴한 결과 11동의 건축물 기초와 회랑, 배수구 등을 찾아냄. 고려청자와 청자기와, 명문기와 등 고려시대 왕궁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유물도 대거 출토됐음.

● **北 올해 식량 필요량, 20% 부족(10/14, 주중 한국대사관)**

-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14일, “2008년 북한의 식량수급량 평가결과 수용량 540만중 2008년 9월 현재 441만이 확보돼 99만이 부족한 상태로 파악된다”고 언급
- 북한이 현재 확보한 441만은 전체 필요량의 81%에 해당하는 양이어서 전체 필요량의 19% 정도가 모자라는 셈, 북한이 올해 확보한 식량은 2007년부터 이월된 양이 401만이며 2008년 각국으로부터 도입된 40만을 포함한 것임.
- 올해 도입된 식량 40만은 중국으로부터 전달받은 23만을 비롯해 미국(11.8만t), 세계식량계획(WFP. 4.2만t), 러시아(0.3만t), 기타(1.5만t) 등으로 구성
- 중국이 올해 공급한 식량은 해관 통관 기준으로 대북 금수조치로 올해 4~5월에는 식량공급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6~7월 두 달 동안 옥수수 5만t이 공급되는 등 이후에 재개, 한국 정부는 북한에 옥수수 5만t 지원을 제안하며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했으나 북한의 거부로 올해 우리 정부로부터 지원된 식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

● **어린이어깨동무, 평양에 새 소아병동 준공(10/14, 연합)**

- (새)어린이어깨동무(공동대표 권근술 정명훈 조 형)가 서울대학교 병원 어린이병원의 협력을 얻어 북한 평양시 중구역에 있는 평양의 학대학병원 내에 신축한 ‘어깨동무소아병동’이 완공돼 10월 24일 준공식을 가짐. 어깨동무측은 준공식 참석을 위해 130명의 방북단을 구성,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23일 방북

● **정부, 김태호지사 방북 “시기 부적절” 불허**

- 김 지사는 당초 10월 4~6일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 소학교 준공식과 협동농장 운영상황 점검 등을 위해 방북할 계획이던 ‘경남도민 대표단’의 일원으로 북한 방문을 신청했으나, 정부가 난색을 표명하며 연기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따라 김 지사를 비롯한 경남도 관계자와 남북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해 온 ‘경남통일농업협력회’ 관계자, 소학교 지원모금운동 헌금자 등 140여명으로 구성된 방북단 모두 방북 계획을 취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힐 차관보 “北 플루토늄 검증에 자신”(10/19)

-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이달초 방북시 이룩한 북미 핵 계획 검증 합의에 따라 북한이 과거에 제조했던 플루토늄의 정확한 양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자신감을 보였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9일 보도.
- 힐 차관보는 17일 하와이에서 아사히(朝日)신문과 가진 회견에서 “플루토늄의 양이 많으면 많은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 플루토늄량이 검증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며 실용적인 수준에는 도달하지 않은 농축우라늄에 의한 핵개발 계획 보다 우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동기록 분석과 기술자 면담, 시설에서의 시료 채취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플루토늄 검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北 핵시설 불능화 완전 재개” <미국무부> (10/18)

-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활동을 완전히 재개했으며 핵연료봉이 추가로 제거되는 등 불능화 활동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무부가 17일 밝혔다. 손 매코맥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시설 재가동을 위한 활동을 모두 다시 되돌려놓고 있다”면서 “모든 봉인과 감시장비가 다시 설치됐고 이동시켰던 장비들도 다시 있었던 곳으로 옮겨졌다”고 말했다.
- 매코맥 대변인은 또 “원자로에서 추가로 핵연료봉도 제거됐다”며 원자로에서의 불능화는 북한이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하면서 불능화 작업을 중단했을 때보다 더 나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연료봉의 60% 정도가 현재까지 제거됐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하지만 매코맥 대변인은 “재처리와 연료 제조시설은 그들이 종전에 했던 기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과 진전의 필요성을 지적.

● 김숙 “북한이 도움받을 준비되면 돕겠다”(10/17)

-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7일 제주 중문관광단지 제주평화연구원에서 열린 ‘세계 식량위기: 동북아에서의 사회적·경제적 위협과 도전’이란 주제의 워크숍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만성적 식량부족을 해결하는 길은, 근본적 변화에 대한 북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한 뒤 “그러나 북한이 아직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조짐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 식량 원조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아무런 조건 없이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북한이 지원을 요청하면 검토를 거쳐 즉시 지원할 것이고, 심각한 식량위기나 자연재해가 닥쳤을 경우에는 북한의 공식 요청이 없더라도 식량지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 본부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소강국면을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기회있을 때마다 남북 대화 재개를 요구했으나, 북한은 어떤 대화도 거부하고 (이 대통령의) 지도력과 남한 정부를 비방해왔다”고 전제한 뒤 “남북 관계가 전환점을 맞는 현 시점에서, 일부 사소한 사건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中 “차기 6자회담 일정 조율중”(10/16)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4~25일 열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이전에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두가 적절하고 편리한 시간에 조속히 차기 6자 수석대표 회담을 개최하자는 것은 참가국의 공통된 인식”이라면서 “일정이 확정되면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도 6자회담 일정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가운데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와 미국 대선(11월 4일) 일정을 감안해 개최 일자를 선택, 참가국들에 회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북핵 폐기 비용, 한국등 분담해야” <美상원외교위 전문위원>(10/16)

- 북한의 핵 폐기물과 핵시설 처리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한국을 비롯해 6자회담 당사국들이 그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프랭크 자누지 미 상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이 주장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
- 미국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선 후보 진영에서 한반도정책 등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자누지 위원은 15일 미 하원 레이번빌딩에서 열린 한반도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미국의 경제위기 상황을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그는 영변 핵시설에서 핵폐기물을 청소하고 안전하게 제거하는 등의 일에 많은 돈이 든다며 “처음에는 미국이 비용을 낼 수 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한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도 비용을 나눠 낼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미정” <미국무부>(10/16)

- 미 국무부는 15일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이후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재개하고 있지만 향후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손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테러지원국 해제조치 이후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영변 핵시설 장비를 다시 봉인하고 장비를 옮겨놓고 있다”면서 “그들은 종전의 영변 핵시설 불능화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 하지만, 매코맥 대변인은 차기 6자회담 수석 대표 회담 개최와 관련, 진전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면서 “브리핑에 나오기 전에 이에 대해 알아보지만 아직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매코맥 대변인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시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은 일본 납치 문제 해결에 매우 깊은 관심이 있다”고 말한 뒤 “그러나, 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적 문제이며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보상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 “北 핵검증 협력, 테러지원국 해제 실효성에 달려” <조선신보>(10/15)

- 핵검증에 대한 북한의 협력은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여 5개국의 10.3합의 이행 여부에 달려 있으며, 북한은 “5자의 행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의무 이행을 태만하거나 거부하는 데 대해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5일 보도.
-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이 신문은 ‘조선이 주시하는 5자의 의무 이행’ 제목의 기사에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르는 비핵화 과정은 검증과 감시를 전제로 한다”며 “조선의 핵포기 과정과 더불어 미국을 비롯한 5자의 의무 이행도 검증과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숙 “비핵화 2단계 일정조정 필요”(10/15)

-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 이 달말로 합의된 북한 비핵화 2단계인 불능화 조치와 관련, 내년으로 넘기는 일정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김 본부장은 이날 한나라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 참석해 “북한을 포함한 6자가 합의하기로는 2단계는 10월말까지 상호 완료하기로 했으나, 그 중간에 늦어짐으로 인해 해를 넘기는 일정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차명진 대변인이 밝혔다.
- 김 본부장은 “2단계 11가지 과정 가운데 나머지 연료봉을 수조에 담귀놓고, 미사용 연료봉을 해외로 방출시키고, 원자로 내 시설인 사용 후 연료봉을 수로에 넣는 등 3가지가 남아 있다”면서 “11월까지 시간이 짧고 이에 상응하는 주변국 식량 지원이 50만t 남아 있는데, 주변국에서는 이것도 수용 가능하지만 북한의 수용능력이 한달에 5만t 밖에 안 돼서 해를 넘겨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북핵 검증, 폐기물시설보다 원자로 시료 채취 중요”(10/15)

 - 미국은 북핵 검증에서 플루토늄 생산 총량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군사시설이라며 접근을 거부하고 있는 핵폐기물 시설보다는 원자로에 대한 시료 채취가 중요하다고 미국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장이 주장.
 - 올브라이트 소장은 15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향후 미국 정부의 검증 초점은 영변 원자로에서 뽑아낸 플루토늄의 총량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원자로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

- “北 오늘부터 불능화 작업 재개”<IAEA>(10/14)

 - 북한이 14일부터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작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3일 밝혔다. IAEA는 회원국들에 배포한 문서를 통해 북한이 14일부터 IAEA 검증팀이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원자로에서 연료봉을 제거하는 작업을 개시함으로써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서는 또 북한이 13일 IAEA 검증팀의 핵시설 복귀를 허용했다면서 이에 따라 검증팀이 재처리시설의 폐쇄 상태를 감시하기 위해 봉인과 카메라를 다시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멜리사 플레밍 IAEA 대변인은 “북한이 영변에 있는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 핵연료봉 제조 시설, 그리고 재처리 시설 등에 대한 IAEA의 접근을 허용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 “6자회담, 아셈.美대선 고려해 개최”(10/13)

 -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13일 6자회담 개최시기와 관련, “오는 24~25일 베이징에서 예정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와 미국 대선(11월4일)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측으로부터 아무런 제의가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문 대변인은 지난 7월 6자 수석대표회의에서 10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던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이 합의대로 이뤄질 수 있는냐는 질문에는 “꼭 진행된 것으로 볼 때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불능화 재개 움직임에 대해 “북한이 곧 재개한다고 했는데 재개 움직임은 아직 발표하지 하루밖에 안지나서인지 파악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 “6자회담, 24~25일 ASEM 전후 열릴 듯”(10/13)

 - 북한과 미국이 검증의정서에 합의함에 따라 6자회담이 오는 24~25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전후한 시점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 소식통이 13일 전했다. 이 소식통은 “가급적 협상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6자회담을 조속한



시일내 개최하려 했으나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입장에서는 ASEM 준비 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시일이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또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과 합의한 검증의정서 내용을 의장국 중국에 제출한 뒤 6자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으나 미국이 발표한 내용은 이미 6자회담 관련국 간에 공감대가 이뤄진 것인만큼 북한이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나. 미·북 관계

● “美 대북 지원식량 5차분 출항”<RFA>(10/18)

- 미국이 북한에 1년간 지원키로 한 식량 50만t 가운데 5차분인 2만 5천60t의 옥수수과 콩을 실은 미 선박이 17일 오전 북한을 향해 버지니아주 노퍽항을 출발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
- 미국 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의 제랄드 크루즈 공보담당은 “미 국적선 메리 앤 허드슨호가 기상여건이 없는 한 다음 달 18일경 북한 남포항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달에 선적될 6차분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당분간 미국 구호단체들이 대북 지원 식량의 구매, 선적, 분배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방송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지난달까지 보낸 11만 8천여t의 식량은 대부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함경도와 량강도 등 8개 지역에 배급됐지만, 이번 선적분은 월드비전, 머시코, 사마리탄스 퍼스,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크리스천 프렌즈 오브 코리아 등 5개 구호단체가 맡아 자강도와 평안북도에 분배할 예정.

● “오바마, 美-北 대화.수교 원해”<그레그 前대사>(10/18)

- 도널드 그레그 전(前) 주한 미국대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오바마의 대북 정책에 대해 “오바마는 검증할 수 있는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면서 “그는 북한과의 대화와 관계형성, 그리고 외교관계 구축이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 오바마 선거캠프의 외교정책 자문으로 활동 중인 그레그 전 대사는 이날 뉴욕 예시바 대학에서 한인유권자센터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주최로 열린 ‘2008 한반도 평화포럼’에 참석해 이렇게 밝혔다.
- 오바마 측 대변자로 참석한 그는 “오바마는 의견의 불일치가 있더라도 대화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 같은 독재국가의 변화는 외부 강요가 아니라 국가내 지도력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엄격하고 신중한 참여,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레그 전 대사는 이어 “중국이 6자회담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고 러시아도 조만간 외무장관을 평양에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더 이상 다른 당사국들이 6자회담에서 선두를 잡아서 안 되며 미국이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통해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또 “오바마는 한반도 통일 전에 비핵화가 이뤄져야 하며 공식적으로 평화조약이 체결돼 한국전쟁이 종료되고 긴장 완화와 외교관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면서 “그는 궁극적으로 한반도가 통일될 것이며 한국인들이 통일을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음.

-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오바마는 한미 FTA를 지원하지만 자동차나 쇠고기 같은 문제가 적절하게 조정된 후에 비준 동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음.

● “北-美합의 애매모호..악용여지 많아” <WT>(10/18)

- 미국이 최근 북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팀의 영변 핵시설 복구를 조건으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했지만 미국과 북한의 합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애매모호한 내용이 가득차 있어 북한이 핵무기 제조와 연구를 계속하는데 악용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워싱턴 타임스(WT)가 17일 지적.
- 타임스는 이날 ‘평양 달래기’라는 사설에서 북한이 이번 합의 발표에 이르기 몇 주 전까지만 해도 IAEA 검증팀을 쫓아내는가 하면 영변 핵시설 가동 재개를 선언하고 몇 차례 미사일 실험까지 감행했다며 “이러한 전술이 사실상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논평했음.
- 타임스는 또 부시 행정부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미국과 IAEA 검증팀이 현장에서 북한의 핵 비밀에 대한 검증과 핵 시설 불능화 작업을 계속하는 상황을 물려받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음.

● 北 “적대시 정책 철회돼야 비핵화 실현”(10/16)

- 북한의 신선호 유엔 대표부 대사는 유엔 총회 제63차회의에서 “조선(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자면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핵위협이 종식되고 ‘제도 전복’을 노린 적대시 정책이 결정적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재미동포 온라인 매체인 민족통신이 16일 전했다.
- 신 대사는 지난 13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본질에 있어서 우리 공화국(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 종식과 핵위협 제거와 직결된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음. 그는 북한은 “초대국의 위협을 항시적으로 받고 있는 나라”라며 “우리가 핵억제력을 소유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은 바로 반세기 이상에 걸치는 미국의 뿌리깊은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음.
- 그러나 북한은 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입장을 갖고 “핵신고서 제출과 핵시설 폐기단계에 들어가서 해야 할



조치들까지 앞당겨 취했다”고 그는 말하고 “앞으로도 철저히 ‘행동 대 행동’ 원칙에서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北, 유엔서 美반테러전을 “국가테러”라고 비난(10/16)**

- 북한 정부 대표는 유엔 총회 제63차회의에서 미군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공, 이들 나라에서의 반테러전을 “국가군대에 의한 테러행위의 전형”이라며 “국가테러행위를 시급히 근절하는 데 특별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
- 북한 대표는 지난 8일 열린 유엔총회 6위원회 ‘국제테러 제거 조치’에 대한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국가군대에 의한 테러행위의 위험성에 보다 각성하며 모든 반테러 활동이 유엔을 중심으로 하여 철두철미 유엔현장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되고 국제법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테러지원국 해제 적은 성과지만 중요”<빅터 차>(10/16)**

-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15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는 “매우 적은 성과지만 중요하다”면서 특히 차기 미행정부가 북핵 협상을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는 이날 조지타운대 모르타라 국제학연구소에서 ‘김정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라는 주제로 한 강연에서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겉으로 보기엔 끔찍해 보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래서 일부에서 제기된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요구에 굴복했다는 비판과는 달리 “현명한 조치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 **“부시, 위기 대신 불만족스런 안정 선택”<WP>(10/15)**

- 북미간 핵검증 합의 및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해제와 관련, 미국의 유력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 부시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서 손을 떼 차기 미국 대통령에게 위기를 넘겨주기보다 불만족스럽지만 안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 포스트는 이날 사설을 통해 이번 합의 이후 북한이 영변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단의 활동을 재허용하고 핵불능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평가했다. 신문은 이로써 북핵 검증과정이 성과가 없더라도 차기 미 행정부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양성하게 생산하거나 2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북한과 즉각 대처하지 않고 새 정부의 대북전략을 검토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 WP칼럼니스트 “北은 그래도 테러국가”(10/15)

- 미국 워싱턴 포스트(WP)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앤 애플바움은 14일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지만, “정상적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북한은 여전히 ‘테러리스트 국가’이며, 이는 모든 사람이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애플바움은 이날 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북한은 시리아와 리비아에 미사일 기술을 판매했고, 외교관들을 암살했으며, 한국과 일본 시민들을 납치하고도 그들의 생사여부에 대해 알려주길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NYT “대북협상 굴복 아니다”..美강경파 비판(10/15)

- 북한이 핵 불능화를 재개하고,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최근의 북·미 협상과 관련, 미국의 유력지인 뉴욕타임스(NYT)는 14일 사설을 통해 “(미국내)대북 강경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굴복은 아니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번 협상에 사용된 단어들이 모호하고 기밀한 것이어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최악의 충돌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은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 NYT는 “최근 몇 주 동안 양측은 위험한 치킨 게임(한치의 양보 없이 극단적으로 대결하는) 양상을 보여왔다”며 “미국은 사찰단이 어떤 장소든 접근해서 어떤 것도 볼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해 온 데 대해 북측은 영변 핵시설 접근을 차단하고 플루토늄 생산 재개로 위협했으며, 두번째 핵실험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 신문은 이번 협상이 ‘굴복’이라고 주장하는 미국내 대북 강경파들에게 “지난 6년동안 딕 체니와 다른 강경파들은 북한과의 어떤 심각한 대화도 꺼려 왔으며, 그 동안 북한 과학자들은 최소한 4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했다”면서 “그들의 전략은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 일·북 관계

● 北, 외교관들에 ‘중대발표’ 대기 명령<요미우리>(10/18)

-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대 발표”를 앞두고 해외 주재 외교관들에게 대기 명령을 내렸다고 일본 언론이 18일 보도.
-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북한 문제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세계 전역의 자국 외교관들에게 여행을 자제하고 한 장소에 머물러 있을 것을 당부.

● 北신문, 日총리 ‘대동아전쟁’ 발언 비난(10/17)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가 2차대전중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전쟁을 ‘대동아전쟁’으로 표현한 데 대해 “군국주의적 망발”이라고 비난했다.



- 신문은 ‘군국주의 괴수의 얼빠진 수작’ 제목의 논평에서 “제2차 세계 대전 시기 일제가 도발한 전쟁은 ‘대동아공영권’의 간판 밑에 아시아를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도발한 범죄적인 대륙정복 전쟁”이라며 아소 총리가 ‘대동아전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단순히 그가 역사에 대한 무지나 그 어떤 착각으로부터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본심”을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과거 침략적 범죄와 패망에 대한 죄의식과 수치를 느낄 줄 모르고 그 무슨 ‘자랑스러운 역사’를 운운하는 것은 패전의 양갓음과 복수로 이를 가는 자들이나 할 수 있는 망언”이라고 지적했음.

● 北, 日 아소 내각에 관망 태도(10/16)

- 북한은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총리의 사임과 이에 따른 아소 내각 출범 때 대남방송인 평양방송을 통해서만 아무런 논평 없이 짤막하게 사실 보도에 그쳤음. 다만,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이 지난달 7일 후쿠다 전 총리의 사임 후 일본 정국을 전하는 가운데 총리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아소 당시 자민당 간사장에 대해 “강경 우파세력의 대표적 인물”이라며 부정적 시각을 표출했었음.
- 당시 이 신문은 아소 간사장이 과거 총무상과 외상 등을 지낼 때 “주변나라의 민족적 감정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들을 거리낌 없이 내뱉은 바 있는 강경우파세력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평했음.

라. 러·북 관계

● 북-러, 수교 60주년 친선 과시(10/17)

- 북한과 러시아는 수교 60주년에 즈음해 특히 라진-하산 철도와 라진항 개선 공동사업에 착수함으로써 앞으로 양자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주요한 기반을 마련했음. 양국은 지난 7월 북한 30%, 러시아 70%의 지분으로 ‘라선국제집합(컨테이너)수송합영회사’를 설립해 라진-하산 철도와 라진항관련 16개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음.
- 북한은 1948년 10월12일 옛 소련과 수교했으며 소련 붕괴 후 러시아는 1991년 12월 옛 소련이 해체된 후 러시아는 소련의 대북관계를 승계했음.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북-러 친선협회, 주북 러시아대사관은 16일 평양 룡라도유원지에서 친선모임을 열어 예술공연과 체육오락경기를 갖고 양국간 우의를 다졌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17일 전했다.
- 라브로프 장관은 박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에 대한 답례로 내년 북한을 방문할 예정.

● 북-러, 우호 관계 재확인(10/15)

-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15일 모스크바 외무부 영빈관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정치·경제·문화 교류



를 촉진하기로 합의.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양국 국민의 이해에 맞춰 협력 관계를 증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양국 관계는 동북아 평화·안보 유지에 있어 중요하며 양국이 국제 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또 라브로프 장관은 “양국 관계는 2000년 체결한 우호 조약을 토대로 진전되고 있다”면서 “박 외상의 방문에 대한 답례로 내년에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대북 노동당 중앙위 비서가 오는 11월 모스크바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 北-러 외무, 15일 회동서 북핵문제 논의(10/14)

- 15일 열리는 북한과 러시아 외무장관 회동에서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전개될 북핵 협상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14일 이타르타스 등 러시아 현지 언론들이 보도.
- 모스크바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의 박의춘 외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5일 모스크바 러시아 외무부 영빈관에서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정치·경제·문화 교류 협력에 대해 협의할 예정.
- 한 외교 소식통은 “이번 방문은 러시아와 북한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지만 핵 문제가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다.

● 주러 북한대사 “테러지원국 해제 환영”(10/14)

-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고 13일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보도. 김영재 주러 북한대사는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의 조치를 환영하며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모든 6자회담 당사국들이 각자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의 공통 관심사는 한반도에서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中 경유 北 탈북자 러시아서 난민지위 획득(10/13)

- 북한 탈북자가 중국을 거쳐 러시아에서 난민지위를 획득, 조만간 한국으로 갈 예정이라고 러시아 일간 블라디보스토크 노보스티가 지난 10일 보도. 신문에 따르면 백모씨라는 여성 탈북자가 지난해 10월 25일 밤 자동차 타이어 튜브를 이용해 국경지역 강을 넘어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시의 한인 교회에 머무르다 현지 당국에 붙잡혔음.
- 백씨는 비교적 가벼운 3개월간의 구류 처벌을 받은 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도움으로 곧바로 난민지위를 획득, 조만간 한국에 갈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을 거쳐 베트남으로 한 차례 탈북했다 송환된 경험이 있는 백씨는 러시아로 가기 전 중국에서



4년간 불법 체류했으며,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탈북자 지원단체를 돕는 탈북자 출신의 이모씨를 통해 월경(越境) 장소와 날짜 등을 전해 받았다는 것. 한 소식통은 “러시아 내에서 일하는 파견 노동자들이 작업장을 이탈해 난민지위를 얻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중국을 거쳐 러시아로 들어온 탈북자가 난민지위를 획득하기는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마. 기타

● 호주, 캐나다, WFP 대북 긴급지원 참여(10/17)

- 호주와 캐나다 정부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최근 새로 시작한 대북 긴급 식량지원 프로그램에 각각 300만달러와 200만달러를 지원키로 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
- 호주 정부는 16일 ‘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캐나다 정부도 지난 10일 WFP를 통해 북한에 200만달러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WFP는 지난달 1일부터 내년 11월까지 15개월동안 북한내 131개 군(郡)의 어린이와 산모, 노인 등 취약계층 620만명을 대상으로 총 5억360만달러 규모의 새로운 대북 긴급 식량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하고 세계 각국에 지원을 호소하고 있음.
- WFP의 요청에 따라 16일 현재까지 대북 지원금을 기부한 나라는 스위스 271만2천달러, 이탈리아 77만8천달러, 노르웨이가 39만5천달러, 뉴질랜드 34만7천달러, 룩셈부르크 29만8천달러이며, 호주와 캐나다의 지원 약속으로 참여국이 7개로 늘어났음.
- WFP는 특히 한국 정부에 대해선 최대 공여국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최대 6천만달러 상당의 지원을 공식 요청했으며, 한국 정부는 북한에서 19일까지 진행될 작황 조사 결과가 나오는 11월초 지원 시기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RFA는 전했다.

● 서울대, 국내 최대 북한문학 자료 수집(10/16)

- 서울대 중앙도서관은 김일성대 박사 출신인 김학렬(73) 재일조선문학예술가동맹 고문이 기증한 소장품으로 도서관 내에 ‘학렬문고’를 설치하고 이를 기념하는 전시회와 세미나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시인이자 문학 연구자인 김 박사는 일본에서 태어나 도쿄(東京) 조선대를 졸업하고 북한 김일성종합대 조선어문학부에서 ‘조선프롤레타리아문학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북한 문학 전문가임.

● 北 “남북관계 전면차단 포함 중대결단 검토”(10/16)

-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며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는 부득불 북남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해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북한은 16일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자주통일과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고 말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
- 이에 따라 북한이 남북 당국간 대화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상황에서 개성공단 사업의 중단을 포함해 각종 대남 강경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

● 北 평양서 윤이상음악회 개막(10/15)

- 제27차 윤이상음악회가 15일 평양시 윤이상음악당에서 개막돼 오는 17일까지 열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이날 개막 공연에는 북한의 중앙예술단체와 윤이상음악연구소 관현악단, 김원규명칭 평양음악대학 관현악단 예술인들이 출연했음.
- 여성독창 가극 ‘꽃파는 처녀’ 중에서 ‘이별의 시각은 다가오는데’로 막을 올린 이날 공연에는 윤이상 선생이 작곡한 초기 가극 ‘달무리’, 첼로와 하프를 위한 2중주, 현을 위한 ‘응단’ 등이 무대에 올랐음.

● “北, 외국학생 평양 연수초청 돌연 취소”(10/15)

- 북한이 체제선전을 위해 계획했던 외국인 학생들의 평양 연수 계획을 돌연 취소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이 15일 보도. 이 방송에 따르면 북한의 사회과학자협회(KASS)가 북한의 문화와 역사를 해외에 알린다는 명목으로 유럽과 아시아권 학생들을 모집해 호주 학생 3명, 네덜란드와 일본 학생 각 1명 등 총 5명이 이날부터 3주간 개성과 황북 사리원 및 황남 신천을 방문하고 남북 합작기업인 평화자동차 공장도 견학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사회과학자협회측은 갑자기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여러 사정 때문에 이번 방문단을 받을 수 없다”며 초청 계획의 취소를 통보했다고 이번 연수생 모집의 해외창구인 호주 내셔널대학의 레오니드 페트로브 교수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밝혔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 전작권 전환後 증원전력배치 약속 명시(10/18)

- 미국 정부는 오는 2012년 전시작전권(이하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을 신속히 전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17일 공개적으로 약속했음.
-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이상희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가진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2012년 4월17일 전작권 전환 방침을 재확인하고 미국은 “현재 및 미래에 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회복을 위해 적절한 군사력으로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게이츠 장관은 특히 “전작권 전환이 한반도 전쟁억제 능력을 강화하고 완벽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추진될 것임을 확실히 보장했다”고 성명은 명시했음.

● 美, 對韓 방위공약.신속 증원군 보장(10/18)

- 이상희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미국의 굳건한 대한(對韓) 방위공약과 유사시 신속 증원군의 파견을 확인했음.
- 이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과 유엔군사령부(UNC)의 책임권한 조정 등 이미 합의된 동맹현안을 점검하고 유사시 ‘적절한’(appropriate) 군사력의 신속제공과 한국에 대한 보완전력 지속제공 등을 포함한 17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음.
-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SCM에서 게이츠 장관은 이 장관에게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을 포함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즉각적인 지원을 보장했음.
- 게이츠 장관은 “현재와 미래에 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해 적절한 군사력으로 신속히 대응한다는 미측의 공약에 주목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공동성명에 반영했음.
- 현재 미군 증원전력 규모는 육.해.공군, 해병대 등 병력 69만여명, 합정 160여척, 항공기 2천여대.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시 전개될)증원군의 규모는 현재와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음. 또 게이츠 장관은 한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추 때까지 상당한 보완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동맹이 지속하는 동안 미국이 연합방위를 위해 미국 고유의 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점도 확인했음.
- 양 장관은 성명에서 남북한 상호 관심 현안들을 다루기 위해 남북 대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앞으로 남북관계 관련 사안들에 대해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음. 양 장관은 UNC의 책임과 권한 일부를 한국군에 위임하는 문제와 관련, 내년부터 정전관리 책임조정을 위한 이행계획 마련에 착수해 2012년 전작권 전환 이전에 이를 완료하기로 합의했음.
- 양국 장관은 또 한미동맹이 동북아지역 안정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고 역내 국가들간 안보협회의 필요성에 공감, 이를 처음으로 공동성명에 명시했음. 이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성명에서 방위비 분담을 지지하는 양측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고려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음. 양 장관은 또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문제와 관련, 아프가니스탄의 더 큰 안정과 재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범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한 한미간 협력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데 동의했음. 이밖에 양국 장관은 한미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구조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양국 정상간 공약사항과 현 수준(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 병력 유지 방침을 확인하고 앞으로 주한미군 장병의 복무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음. 두 장관은 또 제41차 SCM 회의를 내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음.

● 한·미, WRSA 양도합의각서 체결(10/18)

- 한국과 미국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에 비축된 미군 전쟁예비물자(WRSA) 양도합의각서를 체결했음.
- 이상희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서명한 양도합의각서에 따르면 전체 52만 톤의 WRSA 가운데 성능이 검증된 탄약과 물자, 장비 등 25만9천 톤(49%)의 물량을 한국이 인수하게 됨. 주요 인수물량은 공대지유도탄, 155mm 포병탄, 81mm 박격포탄, 105mm 전차탄 등이며 한국이 인수하지 않는 물량은 2020년까지 미국 책임하에 한국에서 반출해 폐기하기로 했음. 국가간 이양이 금지된 확산탄은 한국 측의 요청으로 2018년까지 한국에 저장하고 2019~2024년 단계적으로 반출됨.
- 한국은 장부가격 2조5천억 원, 시장가치 4천900억 원에 달하는 인수물량의 대가를 현금 대신 2020년까지 국외로 반출하는 WRSA 물량의 저장·관리 및 운송 용역으로 지불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 국방부 관계자는 “인수 대가는 저장·관리비 2천9억 원, 짐을 싣고 내리는 적하 용역비 342억 원, 2004~2005년 이라크에 반출된 탄약에 대한 과거저장비 탕감액 43억 원, 철도 임차비 319억 원 등 모두 2천713억 원으로 평가된다”며 “실제 현금으로 지급하는 액수는 국외 반출 물량을 진해항까지 수송하도록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하는 319억 원이고 나머지는 군 용역의 가치를 평가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 이날 발표한 한국 측의 인수대금에는 2019~2024년 반출되는 확산탄에 대한 철도 임차비 202억 원을 비롯해 저장·관리비, 적하 용역비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한국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액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 ‘美 증원전력 보장’ SCM 성명에 첫 명시(10/18)

- 한국과 미국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40차 SCM회의를 개최하고 미군 증원전력의 신속제공과 유엔사



정전관리 책임과 권한 조정,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 방위비 분담금 제도개선 등에 대해 협의했음. 특히 양국은 북한 급변사태 등 유사시 한반도에 ‘적정(appropriate) 수준의 군사력(증원전력)을 신속히 제공한다’는 데 합의하고 회의 후 채택한 공동성명에 이를 명시했음. SCM 공동성명에 ‘증원전력 보장’을 명시한 것은 1968년 SCM 1차 회의 이후 40년 만에 처음.

-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각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의 보장에 대한 우려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불식하려는 조치”라면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이 이를 공식 천명했다는 데 의미가 크며 미국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증원전력이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전개되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증원전력의 규모는 현재로서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음.

● 한·미 “北 군사위협 여전히 심각”(10/17)

- 한국과 미국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30차 군사위원회(MCM) 회의를 열어 “북한의 군사위협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기로 합의했음. 양국은 이날 오후 미국 국방부 청사내 합참 회의실에서 열린 MCM에서 한반도 안보정세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군사위협 등을 평가하고 그같이 합의했다고 합참 관계자가 전했음.
- 합참 관계자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안들이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음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회의에서 미측은 북한군이 KN-02을 비롯한 단거리 미사일 등 비대칭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 측에 설명했으며 양측은 연합자산으로 이들 전력의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음.
- 또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군에 이양한다는 전환일정을 재확인하고 전환계획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동노력한다는 데도 합의했음.
- 특히 국제적인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비한 범세계적 동반자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매년 한·미·일 3국이 번갈아 개최하는 전략회의를 통해 3국의 안보협력 증진 방안을 발전시키는 문제도 협의했다고 합참은 전했음.

● “韓美, 北테러지원국 해제 이달초 합의”(10/14)

-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달초부터 미국의 발표가 이뤄진 지난 12일까지 한미 당국간 협의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한 뒤 “이번 미국의 결정은 우리 정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일 북한을 방문했던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3일 서울로 돌아온 직후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게 북미간 검증협약서 문제 등 방북 성과에 대해 설명했으며, 김숙 본부장은 이튿날 오전 김성환 외교안보수석과 함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를 브리핑했음. 이어 지난 7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에 대해 협의했으며, 지난 9일에도 두 사람이 전화통화로 다시 한번 협의 과정을 거쳤다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

●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 17일 워싱턴서 개최(10/13)

- 국방부는 13일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SCM)가 1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고 밝혔음. 이번 SCM에서는 공고한 한미동맹 관계 및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하고 양국 정상이 합의한 21세기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한 안보협력 증진방안이 논의된다고 국방부는 설명. 이번 회의에는 이상희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수석대표로 참가함.

나. 미·중 관계

● 中 “테러지원국 해제 긍정평가” 공식입장 표명(10/14)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북한과 미국이 취한 북핵 협상의 진전 노력에 대해 “중국은 유관 당사국이 6자회담 진전을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논평을 내며 환영 입장을 전했다. “중국은 6자회담 당사국이 각자의 의무를 확실히 이행하고 서로 같은 방향을 향해 전면적이고 균형적인 제2단계 행동을 조속히 이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의 진전은 유관 당사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동시에 국제사회가 가진 보편적인 기대”라고 전제하고 “중국은 다른 당사국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6자회담 과정의 끊임없는 진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음.

다. 미·일 관계

● 美-日 중앙銀, 달러 통화스와프 상한 없애(10/15)

- 국제금융시장의 위기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중앙은행간의 달러 통화스와프 상한을 일시적으로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미국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14일 밝혔음.
- FRB는 이날 성명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RB)가 이 조치를 승인함에 따라 일본중앙은행은 달러 수요에 맞춰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통화스와프 상한 철폐는 내년 4월30일까지 적용된다고 말했다.



- FRB는 또 “FRB와 일본중앙은행 간의 스와프 규모는 미 달러 자금 수요가 얼마가 되든 관계없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일본 중앙은행의 요구가 있으면 달러를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음.

라. 중·러 관계

● 中, 79년만에 러시아로부터 헤이샤쯔 받아(10/14)

- 러시아가 79년간 점령하던 중·러 국경지대의 헤이샤쯔(黑할<木+害>子) 삼각주의 절반이 14일 중국에 공식 반환됐음. 중국 동방조보(東方早報)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오전 중·러 국경지대에서 경계비 제막식을 가졌으며 이로써 러시아는 헤이샤쯔 삼각주에 있는 헤이샤쯔도(島) 일부와 174km² 면적의 인룽(銀龍) 전부를 중국에 반환했음.
- 제막식에는 중국 외교부의 자오시디(趙希迪) 대사와 러시아 외교부 아주1국 부국장을 비롯해 양국의 외교, 국방, 공안 기관 및 지방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음. 이날 중국이 돌려받은 지역은 헤이룽장(黑龍江)과 우수리강이 만나는 중·러 국경 사이에 있는 174km² 면적의 인룽(銀龍)도 전부와 헤이샤쯔도 일부. 이 곳은 중국 국민당 정부 시절인 1929년 소련군이 점령한 뒤 러시아가 79년간 점유했었음.
- 중국은 소련과 러시아를 상대로 1964년부터 44년간의 끈질긴 협상 끝에 지난 7월 양제츠 외교부장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상대로 헤이샤쯔 삼각주 분할 합의를 얻어냈음. 중국 당국은 헤이샤쯔섬을 중심으로 반경 1천800km 안에 중국 동북지방과 러시아 극동지구, 동시베리아, 일본 전체, 한반도와 몽골의 일부분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향후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으로 주목하고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

● 中-러, 태평양에서 합동 군사훈련(10/13)

- 중국 중앙(CC)TV는 12일 인민해방군 동해함대 소속 미사일 구축함 ‘타이저우(泰州)호’와 미사일 호위선 ‘마안산(馬鞍山)호’를 앞세운 편대가 1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해 출항했다고 보도. 중국 해군의 최신예 구축함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인민해방군 동해함대 소속 해군 600여명은 러시아 태평양함대와 공동으로 오는 26일까지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함.
- 중국은 최근 4척의 현대급 구축함을 구입해 모두 동해함대에 배치. 이번에 출항한 타이저우호는 러시아로부터 구입한 두번째 현대급 구축함으로 항공모함을 위협할 수 있는 전함. 중국은 최근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결정한 미국에 항의해 미국과의 군사교류를 중단했으며 러시아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확산 문제 등으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음.



마. 기타

●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 17~28일 개최(10/13)

- 한-아랍 우호친선 특급 카라반 행사가 17~28일 알제리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리비아, 이집트, 쿠웨이트, 튀니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오만, 팔레스타인 등 아랍 11개국에서 개최된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지난 5월26일 창립된 한-아랍 소사이어티 창설을 기념하고 아랍지역에서 한국 문화와 예술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한-아랍 소사이어티 주관 하에 외교부와 문광부, 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추진. 카라반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태권도 시범과 비보이, 사물놀이 표진 공연, 요리축제, 사진 및 서예전시회 등 문화 행사와 무역투자상담회를 비롯한 경제 행사가 주를 이루고 있음.

● 한-인도 방산군수공동위 인도서 개최(10/13)

- 한국과 인도간 제2차 방산군수협력 공동위원회가 13~14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다고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김종민 방사청 차장과 프라딧 쿠마 국방생산차관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품질보증 및 기술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방사청은 설명. 또 자주포, 전차, 호위함 등 한국의 주요 무기체계에 대한 홍보도 이뤄진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 김종민 차관은 이 기간 인도 국방장관을 예방해 양국간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인도 방산업체 시찰을 통해 업체 관계자들과 양국간 협력가능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



[참고 1] 제40차 SCM 공동성명 전문(연합뉴스, 10/18)

- 이상희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미국의 강력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 등 17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음.

다음은 제40차 SCM 공동성명 전문.

『1. 제4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회의가 2008년 10월17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이상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08년 10월16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태영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이클 멀린 제독은 제30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를 주재하였다. 금번 제40차 SCM 회의에서 양 장관은 1968년 이래 한미 SCM회의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해 온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2. 양 장관은 2008년 8월6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래 수요에 보다 잘 대처해 나가기 위해 한미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구조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양 정상간 공약사항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전략동맹의 미래 발전의 폭넓은 비전을 보다 구체화 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한미 양국이 범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왔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와 관련, 게이츠 장관은 지난 4년간 이라크 안정과 재건을 위한 한국군의 중요한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군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명예롭고 당당하게 귀환하게 된 것을 축하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또한 바그람 기지내 의료 및 직업훈련팀을 통한 아프가니스탄 내에서의 한국의 지속적 지원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아프가니스탄의 보다 큰 안정과 재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범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한 양국간 협력이 한미동맹을 계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4. 양 장관은 6자회담이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따라 북한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며 그간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검증문제에



관한 최근 합의와 이에 따른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조치 및 북한의 불능화 조치 재개를 통해 6자회담이 본 궤도에 복귀하였음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검증체제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6자회담 과정에서의 한미간 긴밀한 협의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개발이 탄도 미사일 및 확산 위협과 함께 한미동맹과 동북아의 평화안정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5. 양 장관은 상호 관심 현안들을 다루기 위해 남북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남북 관계 관련 사안들에 대해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안보 환경에 있어 어떠한 미래의 변화와 새로운 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6. 양 장관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한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임무에 대한 상호간 공약을 재강조하면서 한미동맹이 양국의 미래이익을 위해 계속 긴요하며 한반도의 안보와 동북아의 안정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2008년 4월19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한미 정상외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7. 게이츠 장관은 이상희 장관에게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을 포함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즉각적인 지원을 보장하였다. 이상희 장관도 평화 및 안전의 보존을 위한 상호방위에 대한 한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8. 양 장관은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협의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유엔사 정전관리 책임조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기지 이전, 한국의 대외군사판매(FMS) 구매국 지위 향상을 포함한 동맹 재조정과 여타 많은 안보문제들이 진전을 이루고 있는 점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 4년간의 중요한 성과와 한미 동맹의 지속적 발전에 대한 상호 의지를 기반으로 2009년과 그 이후에도 동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9. 양 장관은 한미 동맹이 지역 안정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고 역내 국가들간 안보협회의 필요성에 대해 견해를 같이 하였다.



10. 양 장관은 전략적 전환계획에 따라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평가하고 2012년 4월17일의 전작권 전환일자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현재 및 미래에 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해 적절한 군사력으로 신속히 대응한다는 미측의 공약에 주목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한반도 전쟁억제 능력을 강화하고 완벽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추진될 것임을 확고히 보장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한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추기 때까지 미국이 상당한 보완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또한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국이 연합방위를 위해 미국 고유의 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유념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매년 SCM/MCM 회의를 통해 전략적 전환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 점검하고 이를 전환과정에 반영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금년 8월 실시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연습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확고한 연합방위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연합연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의 지휘관계에 기반한 새로운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 장관은 정전관리 책임을 위한 고위급 실무단이 제39차 SCM에서 보고된 로드맵의 1단계에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2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2009년부터 정전관리 책임조정을 위한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전 이를 완전히 이행하기로 하였다.

12.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 이행의 진전을 점검하였으며 상호 협력에 기초한 공동 노력의 성공적인 완수가 양국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 하였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복무정상화(근무기간 연장)가 연합 작전대비태세 향상에 기여하고 동맹의 지속적 발전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인 공약을 강화할 것이라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13. 양 장관은 주둔국 지원이 한반도에서의 연합 방위능력 강화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평가에 공감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비 분담을 지지하는 양측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미 의회에서 승인된 한국의 FMS 지위향상 법안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동 법안의 통과로 양국간 방위협력이 제고되고 한미 연합방위력이 더욱 강화 될 것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이상희 장관은 한국의 FMS 지위향상을 위한 게이츠 장관과 미국 정부의 강력한 지지에 깊은 사의를 표명하였다.
15. 양 장관은 샤프 한미 연합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연합전력의 굳건한 능력과 작전 대비태세에 중점을 둔 군사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고 받았다.
16. 양 장관은 ‘동맹국을 위한 전쟁예비물자(WRSA-K)’ 양도에 관한 호혜적인 합의를 이루었으며 이를 통해 연합방위능력이 제고될 것임을 평가하면서 동 양도 합의각서에 서명하였다.
17. 이상희 장관은 게이츠 장관에게 미국 정부가 한국측 대표단에 보여준 예우와 환대, 그리고 회의의 성공을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제40차 SCM과 제30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의 강화 및 미래지향적인 전략 동맹으로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제41차 SCM을 2009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bingsoo@yna.co.kr, threek@yna.co.kr (끝)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8/10/18/0503000000AKR20081017207200043.HTML>



[참고 2] 경색 일로 남북관계 9개월(연합뉴스, 10/16)

-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달동안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시하다 4월 1일부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과 정부 당국자들의 대북 언행들에 강력 반발, 대남 비방 공세를 전개하면서 6.15 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음.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를 북한의 대응을 중심으로 정리.

- ▲ 1. 1 = 북 신년 공동사설 “10.4선언 철저 관철” 강조
- ▲ 3. 6 =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남한의 대북 인권개선 촉구에 “망동” 비난
- ▲ 3.24 = 북, 김하중 통일부 장관 발언을 문제삼아 개성공단서 남측 당국 인원 전원철수 요구
- ▲ 3.28 = 북, 서해상에서 단거리 함대함 미사일 3차례 발사. 북 해군사령부 대변인 서해 북방한계선 수역서 남북 충돌 경고
- ▲ 4. 1 = 북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처음 거론하고 “역도”라고 지칭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본격 비난 개시
- ▲ 4. 3 =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 전화통지문, ‘긴장조성 행위 중단’을 촉구한 남측의 전통문 수용을 거부하고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 경고
북 해군사령부 보도, 남측 해군이 북한 영해를 침입했다며 “예상 외의 대응조치가 따르게 될 것” 주장
- ▲ 5. 8 = 조선중앙통신 군사논평원 글,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 충돌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다시 제3의 서해교전, 제2의 6.25전쟁을 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
- ▲ 5.30 = 북, 서해상에서 함대함 단거리 미사일 3발 발사
- ▲ 6.22 = 남북군사회담 북측 대변인 담화, 남측 정부가 ‘3통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에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
- ▲ 7. 8 = 북 조평통 대변인 담화, 이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발언에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라”고 촉구
- ▲ 7.11 = 금강산 관광객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 남한 정부,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
- ▲ 7.12 = 북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 금강산 사건 “유감”이나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며 현장 조사 거부
- ▲ 8. 3 = 금강산 지역 북한 군부대 대변인 특별담화, “금강산 관광지구에 체류하는 불필요한 남측인원 모두 추방” 발표.



- ▲ 8. 9 = 동해지구 북남관리구역 군사실무 북한측 책임자 통지문, “금강산 관광지구 체류하는 불필요한 남측 인원 추방 조치 8월 10일부터 실시” 발표
- ▲ 9. 3 = 북 조평통 대변인 담화, 여간첩 원정화 사건에 대해 “모략극” 주장
- ▲ 9.23 = 정부 소식통 “북한, 최근 서해상과 중국 접경지역서 대규모 비행 훈련 실시”
- ▲10. 2 = 남북군사실무회담 북측 대표단,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개성공단 사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살포중단 요구
- ▲10. 7 = 북, 서해 상공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 ▲10. 9 = 북 해군사령부 대변인 담화, 남측 해군이 북한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해상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일발의 사태 조성” 주장
- ▲10.12 = 정부 소식통 “북한이 9월 중순과 하순 백령도 위쪽의 장산곶 근해서 경비정의 실사격 훈련과 가상 대지 공격훈련 각각 실시”
- ▲10.16 = 노동신문 논평원 글, 이명박 정부의 “반북 대결정책” 지속시 “북남관계 전면 차단을 포함해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 주장

hanarmdri@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8/10/16/0511000000AKR20081016052600014.HTML>

☀ 국제관계연구실 제공